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JULY
Vol.246

**여름처럼 빛날 우리!
하루하루 눈부시게**

삼정  KPMG



파란 하늘만 봐도 행복한 여름

Happy Summer!

산의 매력, 정상이 있어 도전 의욕을 갖게 한다.
바다의 매력, 정상이 없어 욕심을 내려놓게 한다.
당신의 매력, 때론 산을 때론 바다를 찾을 줄 안다.
- 카피라이터 정철

열정과 힐링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온 우리들의 일상에
심을 더해줄 계절입니다.

올여름 산으로, 바다로, 어디든
스스로에게 작은 심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작은 심표로 새 에너지를 얻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OTT가 불러온
콘텐츠 스튜디오 시대

06 Market Reader

기रो에 선 보험사,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은?

08 Team Story

삼성KPMG Think Tank!
경제연구원

10 Client+

콘텐츠가 소비로 이어지는 시대
원스톱 라이브커머스 전문 기업, 모비두

12 Expert's Advice

캐시 그랜트(Cash Grant) 제도 활용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6 People First

삼성인들의 축제!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성료

20 인재양성소

GEP 13기 우수자 영국 연수 스토리
"GEP 해외연수 어땠나요?"

22 삼성인톡

여름 휴가 여기 어때?
삼성인의 여름 휴가 계획 대공개!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인재 4.0

26 心 Care

마음에도 균형이 필요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심리적 균형

28 Samjong News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외



08



16



20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OTT가 불러온 콘텐츠 스튜디오 시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한국은 역대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인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100위권 내 K-드라마가 15편이나 올라오는 쾌거를 이루며, OTT 콘텐츠의 성지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콘텐츠 제작 수요 급증에

스튜디오 물색이 시급해진 제작사

최근 국내 OTT 시장이 커지면서 치킨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외 OTT 기업 간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제작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제작사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스튜디오의 수요 증가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이나 시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스튜디오가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OTT 시장의 경쟁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경쟁에서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를 지역, 유형, 규모, 부지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다.

① 지역: 수도권 인근의 스튜디오

지역별로 살펴보면, 향후 스튜디오는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과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 콘텐츠 제작 업무 특성상 스튜디오의 위치에 따라 제작 인력의 근무 시간이 크게 좌우된다. 제작사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 촬영이 부담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또한, 최근 MBC가 제작해 많은 주목을 받은 <피지컬: 100>과 같이 지상파 방송사의 OTT 콘텐츠 제작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지상파 사옥과 가까운 지역의 스튜디오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피지컬: 100>의 경우도 상암에 있는 MBC 사옥과 가까운 일산 세트장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② 유형: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

두 번째는 유형 측면이다. 앞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버추얼(Virtual) 스튜디오의 성장이 기대된다.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생소하기만 했던 가상현실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다가오면서 실감형 콘텐츠 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0년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2016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면서 274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1,23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2019년 약 2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약 33조 2천억 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전방산업 중 하나인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이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CJ ENM이나 SK텔레콤, 텍스터 스튜디오 등 다양한 기업에서 LED 스크린, VFX(시각특수효과)·XR(확장현실) 촬영용 카메라 등의 첨단 설비를 구비한 버추얼 스튜디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③ 규모: 대규모의 실내외·특수 촬영 복합 스튜디오

세 번째는 규모적인 측면이다. 최근 주요 제작사들이 찾는 스튜디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면을 한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후반 작업까지 원스톱 제작이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고양 아쿠아특수촬영 스튜디오나 합천 영상테마파크, 스튜디오큐브 등은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실내 스튜디오나 특수 스튜디오 등을 추가해 복합 스튜디오로 재편한 예시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이 시작된 스튜디오 센터나 코리아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복합 스튜디오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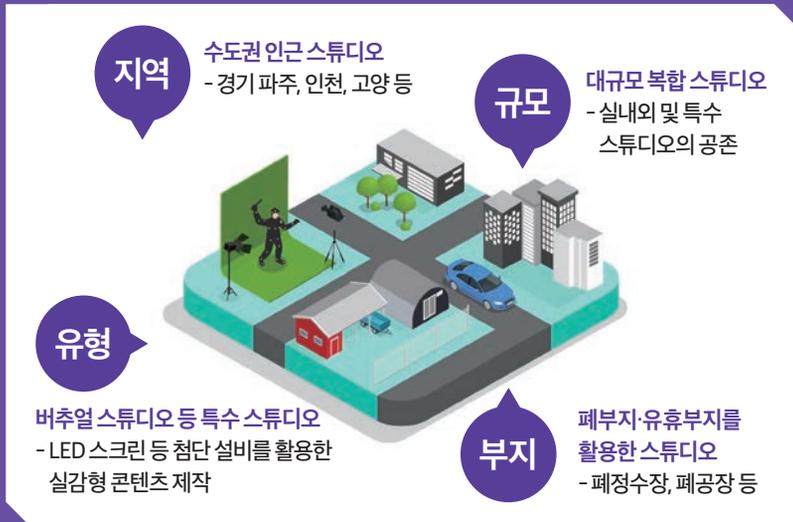
**④ 부지: 폐부지·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부지이다. 최근에는 폐부지나 유휴부지, 또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공장용지 등을 변경하여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양 아쿠아특수촬영 스튜디오는 폐정수장을 활용해서 개관했고 스튜디오드래곤은 문경 마성에 6년 동안 방치된 폐기물 부지를 시대물 야외 스튜디오로 환골탈태시켰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문 닫은 쌍용양회 공장을 스튜디오로 만든 문경시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폐정수장, 유휴부지가 국내 유망 스튜디오 중 하나로 변모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비 감소는 물론이고 역으로 수익 창출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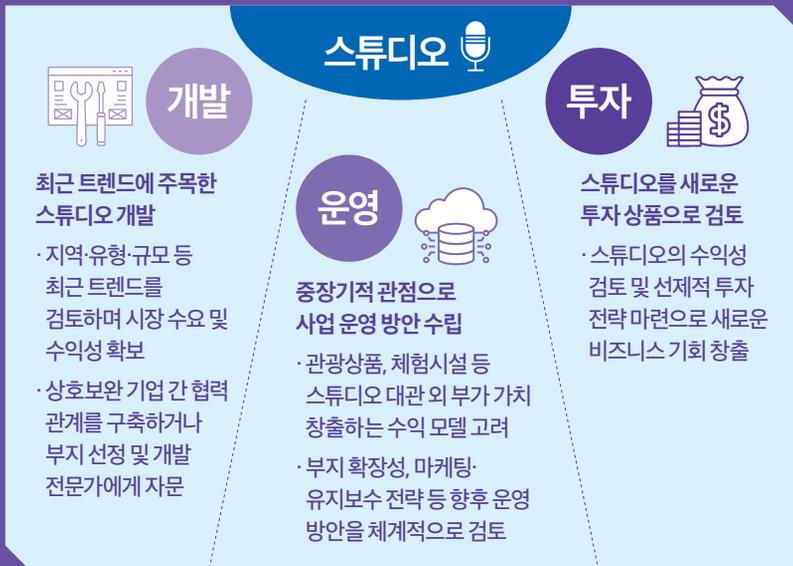
**호황이 기대되는 스튜디오,
비즈니스 기회는 어디서?**

향후 OTT 기업의 콘텐츠 경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 제작의 주요 인프라인 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 확보를 위해 지역, 유형, 규모 등의 측면에서 오늘날 시장 선호를 고려한 스튜디오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스튜디오 부지 확장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관 외에도 관광·체험 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자체들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나 장기 미개발지역 등에 스튜디오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 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설립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스튜디오의 4가지 트렌드



스튜디오의 호황에 대비한 사업 목적별 3가지 미래 전략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 US

**Deal Advisory4본부
서광덕 전무**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경제연구원 박도희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로에 선 보험사,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은?

국내 보험업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은 팬데믹 특수로 2021년에는 6.6%, 2022년에는 8.2%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특수가 종료된 지금 보험업계 환경이 급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가 마주한 급격한 환경 변화

지난 2022년 하반기 채권시장 경색·생명보험사 콜옵션 사태 이후 안정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하반기 보험사의 만기도래 자본증권 규모가 2조 원을 웃돌고 있는데, 올해부터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하지만, 높은 금리 수준과 불확실성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에서 보험사의 투자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2023년 1분기 국내 보험사의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2.55%로 전년동기대비 0.45%p 낮아졌다.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로 업계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도 보험업계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험 소비구조가 노후 소득 보장 및 장수리스크 헷지를 원하는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상품별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제·사회적 특성을 지닌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점도 보험상품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보험사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 채널지형은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제판분리가 진행되고,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플랫폼 기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가 임박하는 등 큰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위험인수자 및 자금공급자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사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필요

국내 보험업계는 국민의 '위험관리자'로서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보험사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자산운용 전략을 변화된 경제·금융 환경에 맞추어 재정립해야 한다. 단기 유동성 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긴축기조 유지와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자산·부채 통합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에 기반하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운용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FRS17 및 K-ICS 시행에 따라 자본·손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기

준이 정립되면 계약서비스마진이 향후 보험사의 장기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경영지표로 부각될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단기손익보다는 장기손익에 방점을 둔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경영전략을 구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품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개인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장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연금연계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 개인자산관리와 노후설계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자 중심의 상품수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MZ세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신상품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 비즈니스가 가시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이머징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리스크 관련 보장상품·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상품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사업을 위해 빅테크 기업이나 비금융 사업자 등과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해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기반으로 비금융기업 플랫폼 상품·서비스와 보험사의 디지털 보험을 결합한 임베디드 보험 등을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업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이종산업으로의 밸류체인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채널 전략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2022년 말 기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비중은 42.3%로 보험사(27.6%)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보험사는 역량 있는 설계

보험산업의 내일을 위한 대응방향성

보험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품전략·디지털 경쟁력 강화

- 주요 변화를 반영한 상품전략·포트폴리오 재정비
- 디지털 기반 밸류체인 고도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확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밸류체인 확대·신사업 추진

- 임베디드 보험 등 서비스형 보험(IAS) 비즈니스 모델 검토
- 비금융 부문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금융·웰빙 통합서비스 제공

중장기적 관점 리스크 관리와 투자전략재검토

-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자산·부채 통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에 기반한 안정적 자산운용

보험사 신뢰도 제고 및 미래 성장기회를 위한 ESG 경영

- 기업활동 및 경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요소 내재화
- ESG 관련 고객 눈높이 및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 체질의 지속적 개선

자본·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가치 중심 성장

- 장기손익 관리에 중점을 두는 가치중심 경영추구
-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른 변화된 경영패러다임에 적응하며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콘텐츠 강화·모집채널 다각화를 통한 채널 경쟁력 제고

- 다양한산업 업권과의 제휴를 통한 언택트 채널 확장성 강화 및 언택트 고객 접점 확보 노력
- 자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채널 전략 병행 및 모집채널 다각화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사 확보에 힘쓰면서도, 온라인 전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언택트 채널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모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채널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널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ESG 관련 보험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 ESG를 반영한 투자정책 등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보험사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요소 내재화에 힘써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업계는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대

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MCS1본부
이준래 상무
Tel. 02-2112-3081
E-mail. junraelee@kr.kpmg.com

경제연구원 곽호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7962
E-mail. hokyungkwak@kr.kpmg.com



삼성KPMG Think Tank! 경제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 경영,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Big4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을 만나본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요 서비스

- ① 산업별 연구 및 보고서, 서적 등 발행
 - ▲ 금융산업(은행, 보험, 증권, 카드, 자산운용, 할부리스, 디지털금융 등)
 - ▲ 전자정보통신산업(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 ▲ 제조산업(자동차, 철강, 조선, 에너지, 화학, 제약·바이오, 중공업 등)
 - ▲ 유통·소비재산업(유통, 식음료, 패션, 화장품 등)
 - ▲ 공공재산업(건설 및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교육 등)
- ② 국내외 산업 트렌드 및 주요 이슈 등을 담은 영상 제작
- ③ 세미나·산업교육 강연 및 인사이트 제공

경제 및 경영 트렌드를 주도하고, 연구하는 경제연구원. 연구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성공적 경영 지원해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성공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국내 및 해외 경제·경영·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정KPMG 공식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국내외 산업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전파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5개의 산업별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원들이 삼정KPMG의 싱크탱크(Think Tank)라는 자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여 년이라는 Big4 회계·컨설팅 법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오랜 기간 축적된 경제 및 산업 연구 결과와 분석 노하우를 갖췄다.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과 서적을 발간하며, 시의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삼정KPMG 그룹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강연과 산업별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인 내 M&A, 컨설팅 등 다양한 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데스크 리서치만이 아닌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시 다양한 산업 분야(Line of Business)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재무 분석, M&A 전략 등이 포함된 더욱 전문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대, 기업 지속성장 위한 중추적 역할 해낼 것!

지난해부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원자재를 비롯해 이자 등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미래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경제연구원은 경영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ESG,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 경제 등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삼정KPMG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 이후 New Reality 속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환경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정보·지식의 허브(Hub)인 동시에 가교(Corridor)가 되도록, 본부 간 인사이트를 연결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및 국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를 짚어내고, 보고서화 하여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연구원의 각오 한 마디!

이효정 상무
(전자정보통신산업팀)
hyojunglee
@kr.kpmg.com



챗GPT 등 신기술이 연일 등장하며 혁신이 이어지는 시대 속에서 테크(Tech)가 변화시키는 ICT 산업 생태계를 연구 중입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와 같은 첨단 기술 트렌드를 조망하는 전시회 분석 보고서 또한 발간하며 차별화된 인사이트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휘 수석연구원
(공공재산업팀)
dohwipark
@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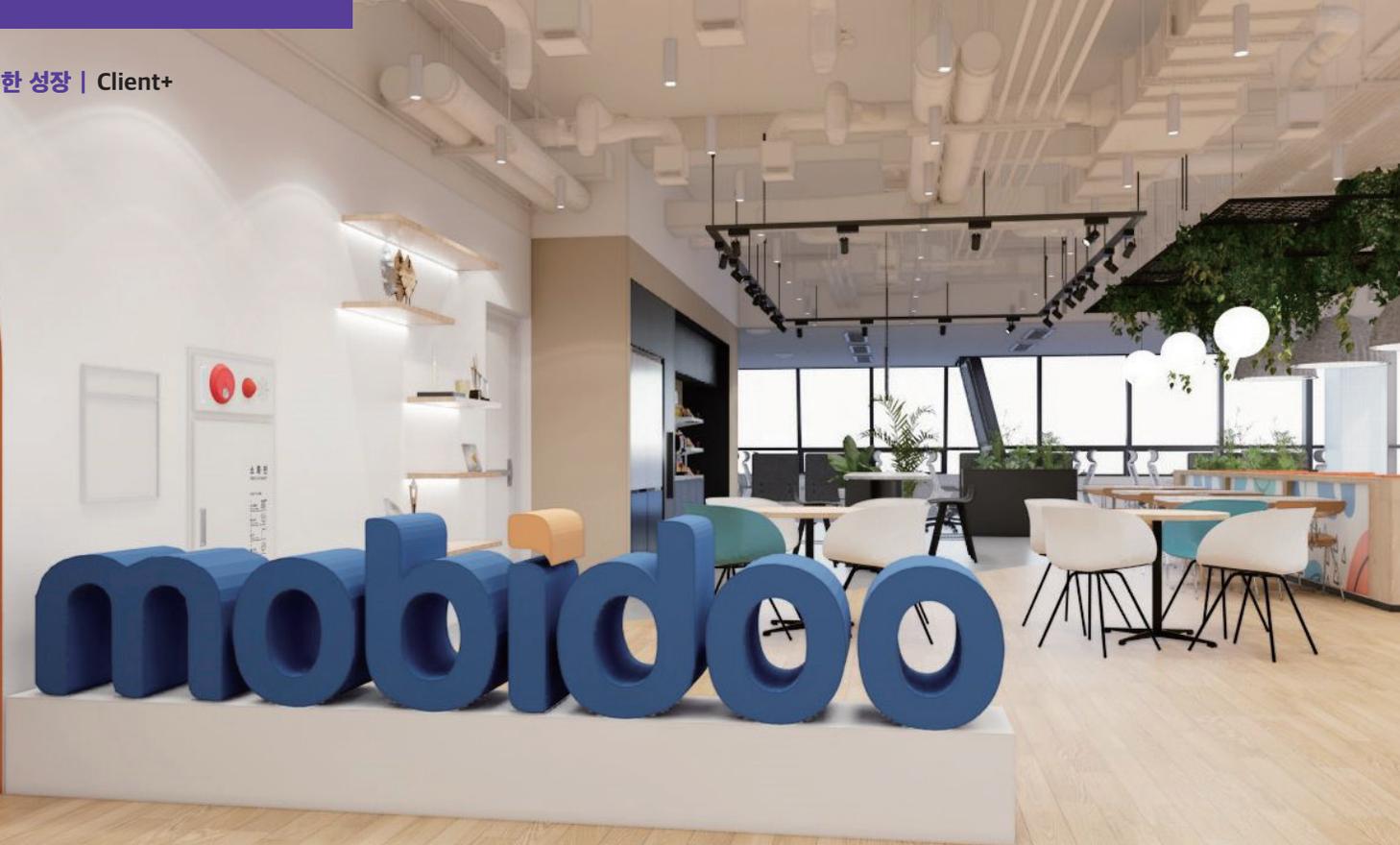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디지털 전환과 ESG 부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프라·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연구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기업 경영의 유의미한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최연경 책임연구원
(금융산업팀)
yeonkyungchoi
@kr.kpmg.com



금융권 업무 범위 확대 논의, 보험업 IFRS17 본격 시행과 마이데이터 고도화, 금융데이터 개방 등 금융업권에 변화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재정비되고 빅테크·핀테크, 비금융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제적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콘텐츠가 소비로 이어지는 시대 원스톱 라이브커머스 전문 기업, 모비두

모비두는 라이브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브랜드와 유통사를 위한 자사몰 라이브커머스 솔루션부터 방송 제작·실시간 타겟 마케팅까지 성공적인 라이브커머스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소스(Sauce)를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지난해에는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Forbes Asia 100 To Watch 2022)'에 선정된 바 있다.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기업, 모비두 3.0 시대를 열기까지

모비두는 2013년 음파 결제 솔루션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했다. 대기업과 손잡고 음파로 모바일 도장을 찍고 결제하는 음파 결제 솔루션을 서비스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기에 한계를 느꼈다.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 라이브커머스로 피벗(Pivot)하게 되었고, 창업 6년 만인 2019년에 라이브커머스 회사로 거듭났다.

모비두가 본격적으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 쇼핑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자사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브랜드들의 움직임이 커지며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지마켓, LG유플러스 등 굵직한 고객사를 다수 보유하며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Sauce 제공 기업으로 안착했다.



모비두 3.0 시대까지의 사업 변화 과정



롯데, 삼성전자 등 브랜드·유통사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 Sauce

모비두는 브랜드와 유통사를 위한 자사몰 라이브 솔루션부터 방송 제작·실시간 타겟 마케팅까지 성공적인 라이브커머스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Sauce를 제공한다. 모비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①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소스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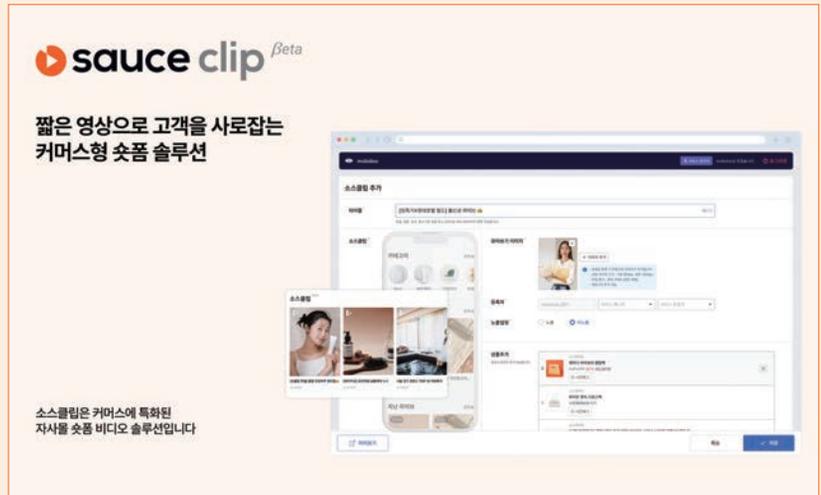
‘소스라이브’는 자사몰에 바로 설치 가능한 B2B

라이브커머스 SaaS 솔루션으로, 기업들의 라이브커머스에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최근 서비스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소스플렉스에서 소스라이브로 네이밍을 변경했다. 간단한 코드만으로 자사몰에 쉽고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고, 고객사에 맞는 디자인 커스텀 및 쿠폰 다운로드 등 다양한 연동을 위한 API를 제공한다. 특히 고도화된 시청 데이터 분석 및 고객 경로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등 강력한 마케팅 기능으로 자사몰의 매출 성장을 돕는다. 소스라이브의 ‘라이브콘솔’은 라이브 방송 관리 기능을 통한 제공하는 톨로서, 라이브커머스 담당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라이브커머스 담당자는 라이브콘솔 기능을 통해 현재 라이브 중인 방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청자 시점의 방송을 모니터링 하거나 채팅과 상품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커머스형 숏폼 솔루션 ‘소스클립’

최근에 모비두는 숏폼 서비스인 ‘소스클립’을 신규 론칭했다.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추세에 따라 유통 업계에서도 라이브커머스형 숏폼이 대세로 떠올랐다. Sauce 고객사는 소스클립을 통해 숏폼 콘텐츠를 커머스에 활용할 수 있고, 러닝타임이 15초~10분 내외로 현저히 짧기 때문에 제작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진입 장벽이 낮다. 또한 제작한 숏폼에 상품을 연결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즐겁고 매끄러운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③ 라이브커머스 특화 마케팅 서비스 ‘소스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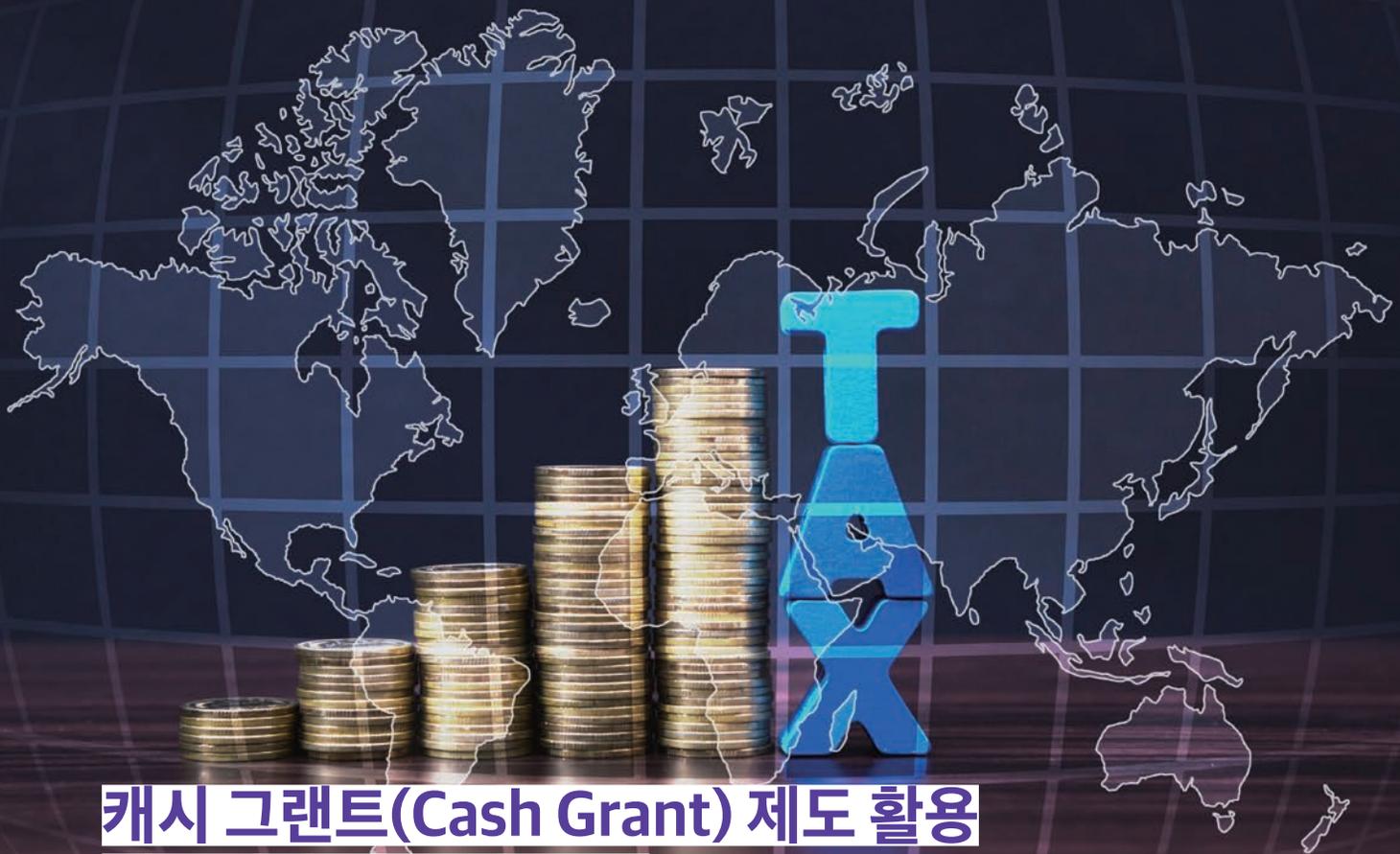
모비두의 ‘소스애드’는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 유효한 라이브 특화 실시간 타겟 마케팅이다. 결제 및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구매 확률 60% 이상 오디언스를 추출하는 고객 정밀 타겟팅 기법을 이용하며, 실시간 라이브에 특화된 미디어 믹스부터 토스, 오라방 등 단독 제휴 매체를 통한 광고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라이브 방송 1시간 내 분단위 설정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유입 및 전환을 극대화한다.

④ 콘텐츠 기획·제작 대행 서비스 ‘소스메이커스’

라이브 방송을 넘어 브랜드 콘텐츠까지 제작 가능한, 국내의 기업들이 믿고 찾는 라이브커머스 제작 서비스 ‘소스메이커스’도 있다. 나이키·레고·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의 라이브 방송을 제작·진행하였으며, 1080p 고해상도 송출 환경에서 최대치의 고화질을 구현하는 등 방송 기술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는다.

쇼퍼를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반 글로벌 진출까지!

모비두는 지난 2022년에 ‘포브스 아시아 유망기업 100(Forbes Asia 100 To Watch 2022)’에 선정되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도 인정 받았다. 앞으로도 모비두는 안정적인 혁신적인 SaaS 기술과 더불어 1,200회 이상의 캠페인 집행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라이브 방송 제작 경험 등을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캐시 그랜트(Cash Grant) 제도 활용 제고해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Tax 인센티브 감소를 우회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캐시 그랜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캐시 그랜트 관련 법 제도의 변화와 이를 활용할 경우 얻는 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Tax3 오상범 부대표

Tel. 02-2112-0721
E-mail. sangbumoh@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5월 23일 게재된 코리아타임스
'[INTERVIEW] Foreign investors advised to consult
eligibility for cash grant'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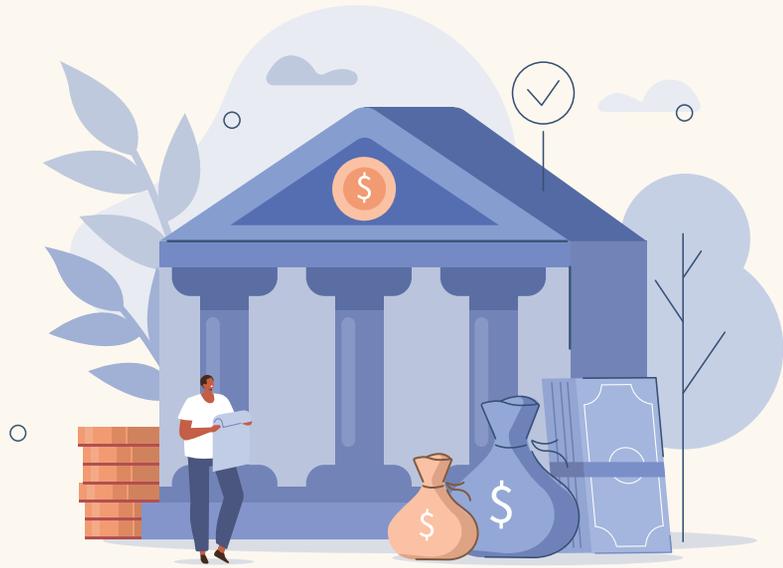
Q 캐시 그랜트(Cash Grant)란 무엇인가요?

캐시 그랜트는 지난 2003년에 한국에 도입됐으며,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인센티브의 한 형태입니다.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이전, 경제적 영향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약 10~40%의 현금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캐시 그랜트 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캐시 그랜트를 통한 인센티브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글로벌 최저한세와 캐시 그랜트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은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OECD의 국제 조세 계획에 승인했습니다. OECD는 2021년 말에 구체적인 세칙인 'Pillar Two model rules'와 'Global Anti-Base Rules(Globe)'를 발표했고, 2022년 3월에는 국가에 대한 입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코멘타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정했고 오는 2024년 1월부터 국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국과 EU 회원국, 일본, 호주 등도 최저한세 채택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만약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게 15%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모회사는 자국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우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캐시 그랜트와 같이 세금 인센티브로 간주되지 않는 현금 환급 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Q 정부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캐시 그랜트 제도에 매년 총 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0억에 불과했지만 2019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 상향된 금액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핵심 기술 이전, 신규 고용 창출, 입지 적정성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캐시 그랜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캐시 그랜트 제도로 현금 보상을 받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약 4,000명의 전문가 중 500명이 조세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 5분의 1이 글로벌 투자 자문과 국제 조세에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시 그랜트 절차에 대한 세무 전문가를 포함해 현금 환급 시스템 관련 정부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세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알아두면 좋을 시사·경제 용어 사전 '알쓸사전'에서는 최근 미국의 경제를 나타내는 롤링 리세션과 유럽 연합에서 내놓은 탄소 중립 법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롤링 리세션

(순차침체·Rolling Recession)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이자 미국 시장조사업체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 야데니는 “미국은 지금 경제 전반의 위축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타격을 받는 ‘롤링 리세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어요. 롤링 리세션은 경제의 각 부문에서 차례로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롤링(rolling·구르다)과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침체는 경제 전반이 일시에 가라앉아 발생하는 특징을 갖지만, 롤링 리세션은 침체가 경제 일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어요. 2023년 미국 경기 둔화가 부동산 부문에서 시작해 민간의 소비 감소, 기업 재고 증가, 자본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거죠. 롤링 리세션 상황에서는 일부 분야가 침체해도 다른 부문의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없이 특정 산업만 체감 경기가 나빠지는 일이 가능해요. 따라서, 롤링 리세션 시 경기 판단이 부정확해지고, 경제 전망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에 초안을 발표했어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2030년까지 EU 내 탄소 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등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산업을 위해 양측이 도입하고 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어요.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내외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ppy workplace



원문과 인터뷰

People First

삼성인들의 축제!
'제2회 삼성KPMG 챔피언십' 성료

16

인재양성소

GEP 13기 우수자 영국 연수 스토리
"GEP 해외연수 어땠나요?"

20

삼성인특

여름 휴가 여기 어때?
삼성인의 여름 휴가 계획 대공개!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인재 4.0

24

心 Care

마음에도 균형이 필요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심리적 균형

26

Samjong News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外

28

삼정인들의 축제!

‘제2회 삼정KPMG 챔피언십’ 성료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펼쳐진 챔피언십의 여정이 막을 내렸다. 삼정인들의 축제였던 챔피언십 현장을 살펴보고, 올해의 우승 본부를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전에 참가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니어 핀 챌린지 우승 삼정인들도 만나봤다.



우승은 Deal Advisory4본부!



손에 땀을 쥐는 토너먼트 경기

삼정인들의 축제, '제2회 삼정KPMG 챔피언십'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생활 속 재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열린 '제2회 챔피언십'은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되었으며, 참가 선수들과 응원하는 삼정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대화합의 장이었다.

3차례의 예선 경기를 모두 마친 후 16강부터는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됐다. 경기 횟수를 거듭할수록 치열한 접전이었다. 16강을 거쳐 8강, 그리고 4강에 안착한 본부는 ▲IM4 ▲ICE3 ▲Tax5·6 ▲DA4이다. 결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4강전은 6월 22일 목요일에 열렸다. 4강전은 Tax5·6 vs DA4, IM4 vs ICE3의 승부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지칠 법도 한데, 힘든 기색 없이

열정의 샷을 날렸다. Tax5·6 vs DA4의 경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Tax5·6본부의 활약을 뛰어넘어 DA4본부가 3홀 앞선 상황에서 1홀만 남아 결승에 올랐다. IM4 vs ICE3의 대결에서는 2홀 앞선 상황에서 1홀이 남아, 승리를 거둔 ICE3본부가 결승행 티켓을 얻었다. 3, 4위전은 Tax5·6본부와 IM4본부가 치르게 됐다.

제2회 우승컵은 'DA4'본부의 손으로!

두 달여 간의 챔피언십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결승전 및 3, 4위전 경기가 6월 28일에 개최됐다. 결승전은 골프 전문 아나운서들의 실시간 현장 중계로 실감 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파이팅!", "나이스 샷 너무 멋있네요!", "우승 가자" 등 유튜브 채팅창에

는 응원의 메시지도 가득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마련된 라이브 퀴즈쇼도 진행되어, 대회를 관람하는 삼정인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결승전은 DA4본부가 2홀을 먼저 앞서 나갔다. 그러다 뒷심을 발휘한 ICE3본부가 1홀 차이까지 바짝 뒤따라왔지만, 다시 DA4본부가 3홀을 앞서가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어 DA4본부와 명승부를 펼친 ICE3본부가 2위를 차지했다. 3, 4위전 역시 치열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3위에 IM4본부, 4위는 Tax5·6본부가 기록했다.

한편, 챔피언십 속 스페셜 경기인 니어 핀 챌린지는 4강전 경기에 앞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은 결승전에 앞서 진행됐다.





예선전 순위 역순으로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기량을 펼쳤다. 아울러, 올해 챔피언십에서는 골프를 즐기지 않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보다 풍성한 시간을 선사했다. '포토존' 이벤트에는 245명이, 응원 메시

지를 담은 명함 럭키 드로우 이벤트에는 2,500여 명이, 조별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된 '경기 승부를 맞혀라'는 이벤트 참여 누적 인원 5,714명이 참여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었다.

약 두 달여간 진행된 제2회 챔피언십 대회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삼정KPMG는 앞으로도 'People First'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인재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기 결과

▶ '제2회 챔피언십' Top 4

우승 Deal Advisory4본부

(강민정, 권윤민, 박창현, 이동철, 박종인, 인세결)

준우승 ICE3본부

(김영선, 김의진, 서범석, 이우현, 이동욱, 정병열)

3위 IM4본부

(박수민, 박재운, 하동현, 한대근, 최재영, 홍인영)

4위 Tax5·6본부

(송종찬, 오영빈, 이민선, 최민규, 노현수, 한재현)

▶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Top 3

남자 부문

- 1위 MCS1 박사무엘 Consultant (290.36m)
- 2위 DA4 박창현 Analyst (290.01m)
- 3위 DA5 김의찬 S.Analyst (282.43m)

여자 부문

- 1위 B&F2 윤혜진 Manager (210.72m)
- 2위 IT Audit 신도는 S.Senior (206.02m)
- 3위 DA7 박혜정 S.Manager (205.72m)

▶ 니어 핀 챌린지 Top 3

남자 부문

- 1위 DA4 정주현 Analyst (3.29m)
- 2위 CM1 김예현 Director (3.38m)
- 3위 DA5 신호용 Analyst (3.95m)

여자 부문

- 1위 Tax6 민수정 S.Manager (0.41m)
- 2위 ICE1 박진주 S.Manager (1.09m)
- 3위 MCS1 박삿별 S.Manager (2.51m)

챔피언십을 빛낸 삼정인들의 소감 한마디

강민정 Manager (DA4)

'방심하지 말자'를 목표로 선수단들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결과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매 경기 응원해 주신 본부원들과 우승의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구승회 부회장님, 김광석 부대표님, 이진연 전무님께도 감사 말씀 전해 드립니다~!

박창현 Analyst (DA4)

우승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 뜻깊고 의미 있는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본부원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구승회 부회장님과 김광석 부대표님, 그리고 심재훈 상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사무엘 Consultant (MCS1) 남자 부문 1위

본부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운까지 잘 따라주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을 통해 본부의 이름을 빛낼 수 있었던 거 같아 뿌듯합니다. 응원해주신 MCS1 본부원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열렬히 응원해주신 장지수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부 그리고 법인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윤혜진 Manager (B&F2) 여자 부문 1위

1등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낼 뿐!! 지난해 늑골부상으로 아쉬운 성적을 거둬, 올해는 부상 방지와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우승은 본부장님과 파트너분들, 본부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11월에 결혼할 남자친구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우승을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네요.

정주현 Analyst (DA4) 남자 부문 1위

제가 니어 핀 대회 1위라니, 아직 얼떨떨하네요! 하하. 예선전부터 실력자 분들이 많으셔서 기대 없이 임했는데, 운 좋게 우승했네요! 정말 기쁩니다. 결승전 응원해주신 심재훈 상무님 외 본부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골프대회를 마련해주신 김교태 회장님 외 경기운영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수정 S.Manager (Tax6) 여자 부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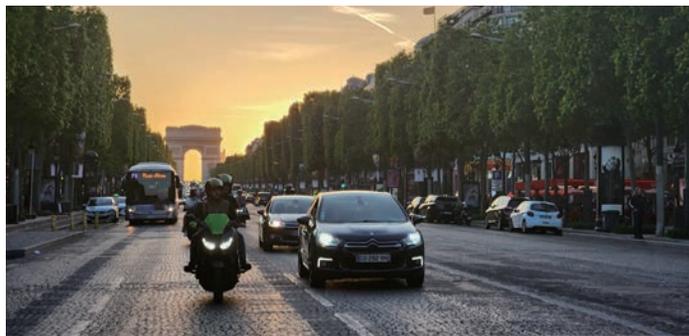
유독 70m 거리에 자신이 없었는데, 챌린지 전날 거리가 50m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에 나름 승산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로 1위를 하게 되어 기쁘네요.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은 Tax6 본부원분들, 스윙 분석,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 강길원 부대표님, 그리고 스트레칭을 도와주신 솔샘 모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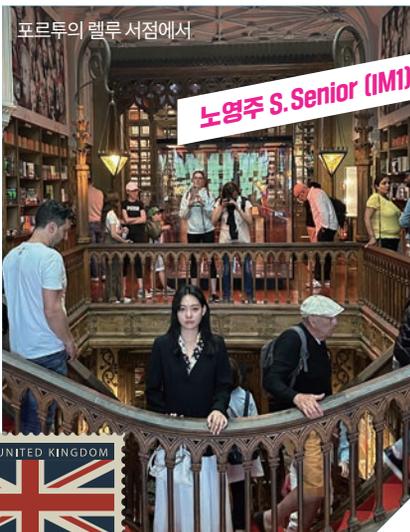
GEP 13기 우수자 영국 연수 스토리 “GEP 해외연수 어땠나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GEP(Global Elite Program) 13기 우수자들의 해외연수가 진행됐다. 먼저, KPMG UK 오피스 투어부터 소규모 테마 여행 ‘Our London Story’, 런던 문화탐방, 뮤지컬 관람 등 GEP 공식 일정을 소화한 후, 5월 25일부터는 6월 2일까지는 개인 자유 여행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돌아온 GEP 13기 우수자들의 연수 후기를 들어본다.



포르투의 렐루 서점에서

노영주 S. Senior (IM1)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본 시간!

이번 연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법인 생활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입사 당시 품었던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더욱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제 모습을 그려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한, UK 런던 오피스에 파견 중인 선배님들과 대화를 통해, 해외 파견에 큰 관심이 생겼고,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매우 멋지게 느껴졌어요. 아울러, 타 본부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함께 자유 여행을 즐길 만큼 짧은 시간 급속도로 친해졌고, 멋진 동기들과 같은 법인에 있음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교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었던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낯선 해외에서 여러 활동을 함께한 타 본부 동료들, 눈만 마주쳐도 방긋 웃어주던 외국인, 저와 엄마 사진에 자연스럽게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등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동료들과 선배님들을 더욱 존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단체 연수 마지막 날 밤에는 펍에 모여, 랩업 겸 저녁 식사를 나눴는데요, 영국에서 여러 활동들을 함께한 조원들과 많이 친해져서 유난히 더욱 즐거웠어요. 낯선 해외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타 연주를 듣던 순간이 생생하네요. 공식 일정 후에는 엄마와 함께 서유럽 4국을 10일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았어요.



엄마와 함께 즐긴 유럽 여행!



모험으로 가득했던 연수

이번 연수는 '모험'이었어요! 낯선 장소와 환경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 사용하며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면서 언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세계 제2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서 KPMG 런던 오피스를 비롯해 각종 글로벌 오피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역시 한층 역량을 강화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했어요.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부 동기들과 한층 더 깊은 신뢰를 다질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감사했고, 소위 '멘붕'의 상황에도 서로 불평 없이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죠. 이후 자유 여행 중 축구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를 여행하며 여유를 느끼고,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에너지를 얻은 시간!

제게 이번 연수는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연수 기간 동료들과 지내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조원들과 함께 방문한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릴 적 좋아했던 영화의 한 장면에 마치 들어간 듯한 마법 같은 경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준 팀원들과 얘기 나누며 보낸 시간 덕분에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한, 홀로 배낭을 메고 여행하면서 학창 시절에 품은 더 많은 도전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에펠탑 전망대에서 본 파리의 웅장함, 벨기에 도심에 울려 퍼진 재즈의 자유로움, 독일 맥주의 시원함, 덴마크 누하운의 상쾌함, 바티칸에서 교황을 뵈었던 행운, 바르셀로나 성당의 거룩함 등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네요.



영국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여름 휴가 여기 어때? 삼정인의 여름 휴가 계획 대공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왔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된 만큼 울여름은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인들 어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을까? '삼정인톡' 이벤트를 통해 삼정인만의 특별한 여름 휴가 계획을 들어본다.



중학교 동창들과 떠나는 베트남

조신형 Manager (Deal Advisory3)

울여름 휴가 시즌에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내년엔 중학교 동창들의 결혼이 우르르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 같이 추억 쌓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 떠나게 됐어요. 8월이라, 동남아의 무더위가 예상되지만, 더 뜨거운 우정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

권혁준 Associate (ICE3)

저는 32세, 늦은 나이에 1년 차로 입사하게 된 신입 회계사입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수험생활이 길어져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한 번 제대로 간 적이 없네요. 입사 후 일을 배우다가, 시즌을 보내다가, 다양한 이유로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가족과의 여행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온전히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 만큼 울여름은 가족과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5도 2촌 살천! 주말마다 강릉살이

박혜민 대리 (Tax6)

남편이 대학원 MBA 과정 중이라 7~8월이 방학이에요. 방학 기간 남편은 강릉 한적한 마을에서 두 달 살기를 할 예정이라, 저 역시도 주말에는 답답한 도시를 떠나 5도 2촌(5일은 도시에, 2일은 촌에)을 살천하러 해요. 덕분에 7월 예정인 여름 휴가 동안은 시원한 강릉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즐기는 요트 여행

정인호 Manager (IA)

무더운 여름, 아름다운 바다에서 즐기는 요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빛나는 바다에서 가족들과 선상 파티를 즐기려 해요. 푸른 바다 위의 하얀 배들을 보면 마치 산토리니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근처 왕산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와 수영도 즐길 수 있고, 구읍벤티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해서 기대 중입니다. 삼정인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향 거제도에서 즐기는 첫 여름 휴가

김나연 Associate (B&F3)

저는 고향인 거제도에 가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갖는 여름 휴가인데, 고향인 거제도에 좋은 펜션들이 많아서 하나 예약한 뒤 부모님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네요.

10개월 만에 떠나는 방콕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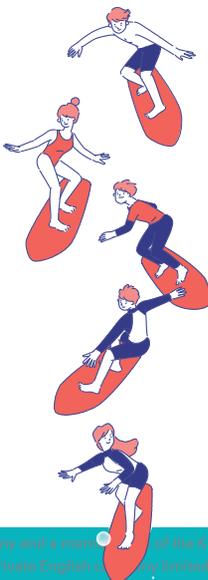
신정은 S.Senior (IM2)

10개월 만에 그리운 방콕으로 3박 4일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에요. 작년 말쯤 태국을 다녀와 일본과 고민을 했지만 방콕 여행의 기억이 너무 좋아 다시 가기로 했어요. 일출과 일몰이 잘 보이는 호텔을 예약했고, 유심도 미리 구매했답니다. 방콕 외곽은 한번은 가고 싶는데 이동이 어려워 투어를 선택했는데 사실 투어 여행보단 자유 여행을 좋아하지만, 보트에서 보는 선셋 사진을 보고 반한 것도 있고, 야유타야를 가보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비도 적당히 오고 만족할 수 있는 투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즐기는 서핑

유수진 Associate (Tax4)

올여름에는 회사 동료분들과 서핑을 배우러 바다로 갈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하는 서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가 때는 현실에 대한 부담을 잊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캠핑으로 가족들과 시원한 여름을!

김주호 S.Manager (B&F2)

올여름 휴가는 캠핑으로 가족들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포천에 위치한 각흘계곡캠핑장으로 갈 예정인데요, 독립 공간도 있고, 얇은 계곡이 있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트래킹 코스도 있답니다. 책 '사피엔스'를 보면 인류가 200백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온 결과 우리는 탐험하고 열매를 줌고 곤충을 잡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해요. 그래서인지 아직 DNA 본연 그 자체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번 여름 우리 가족은 200백만 년 전 고시대의 인류가 살아가던 발자취를 탐험하러 갑니다.



'삼시세끼'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심

서다솜 S.Senior (Tax2)

여름 휴가로, 가마솥 있는 펜션에서 일주일 사는 것을 해보려 합니다. '삼시세끼' 프로그램처럼 가마솥이 있는 펜션에서 직접 가마솥 밥도 지어 먹고, 자연과 어우러진 심을 즐기다 오려고요. 그리고 휴가 일정에 맞는 음악을 미리 선곡해 두고, 휴가 내내 플레이리스트를 즐기려 합니다.



액티비티로 무더위 싹!

김다윤 Associate (ICE3)

올여름 휴가는 액티비티로 콕콕 채워볼 예정입니다. 액티비티 중 요즘 꼭 빠진 것은 서핑인데요,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이번 여름 진정한 서퍼로 거듭나볼 생각이예요! 서핑을 하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면 잠시나마 근심, 걱정도 잊게 된답니다. 또한, 땀이 나도 시원한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면 시원해서 더위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삼정인 여러분들도 실내 에어컨 바람 속에만 있지 마시고, 더위를 마주하고 즐겨보세요!



“통섭형 인재를 길러라 깊고 좁게 알면 AI에 먹힌다”

인재 4.0

시대에 따라 인재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바야흐로 AI 초융합경제 시대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인재상, 즉 <인재 4.0>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새로운 거대한 시대적 변곡점에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형은 무엇일까?

저무는 전문가 시대

“한 우물만 파라(?)” 과거 이 말은 점점 더 위험한 제안이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옛 어른들은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고도 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는 강력한 주문 앞에서 맥을 추리기도 어려웠다. 특히

고질적인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풍토에서 어찌다 발견되는 다재다능한 인재는 왕따되기 십상이었다.

최근 엔비디아(NVIDIA)는 반도체기업 사상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 사건은 내연기관, 인터넷 발명에 버금가는 AI 초기 술문명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검색은 사라진다는 전망과 함께 지금까지 20세기 산업사회를 이끌어 온 기존 전문가 시장의 ‘헤쳐모여’도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또한 달라지고 있

다. 최근 국내 상당수 기업의 인사관리 또한 깊이와 넓이를 겸비한 인재를 구하고 있다. 자칭 전문가라 칭하며, 다른 분야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오픈형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에 성공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강력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파괴적 신기술은 오래된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예술계에선 인간만이 창의적이란 대전제도 무너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나마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과 정보도 대부분 구닥다리 무용지식(Obsoledge)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보도처럼 “생성형 AI발 일자리 소멸론은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딥러닝의 대부, 요슈아 벤지오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다. “깊고 좁게 알면 시에 먹힌다.”

탈(脫)전공 시대, 낯선 것들을 연결하라

과거 분석(Analysis)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세상에선 과학은 정답만을 찾고, 공학은 해답만을 찾고, 인문학은 관념의 놀이터였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적 화두는 ‘낯선 것들의 연결’이다. 그래서 이들의 연결과 결합을 리드해갈 ‘융합지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융합(融合·Fusion)’이란



미래(Future)의 비전(Vision)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학과 예술과 과학의 두꺼운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과의 열린 음악회가 도처에서 열리고 있다. 학문·산업·기술의 고정 칸막이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특히 AI 초융합경제 시대에 기존의 마이크로한 개별 ‘전공(專攻)’이란 왜소한 단어일 뿐이다. 그러나 수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융·복합적 이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 전공이 아닌데요”만 읊고 있다.

통섭형 인재를 잡아라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지식혁명은 다른 지식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파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GE 등 선진기업들은 기존의 한 구멍만 파온 종적 ‘I자형’ 인재와는 다른 횡적 연결을 중시하는 소위 ‘T자형’ 인재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작금에 부상하는 ‘인재 4.0’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통섭형·융합형 인재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통섭(統攝·Consilience)에서 ‘섭(攝)’자를 자세히 보면 귀(耳)가 3개나 달려있어 그 의미가 자못 심장하다. 구체적으로는 좌·우뇌 통합형, 상상력이 풍부한 박식한 폴리매스(Polymath), 브리콜레르(Bricoleur), 에디톨로지스트(Editologist) 등이 뜨고 있다. 기존의 기능형, 지식형 전문가 계층과는 확연히 다른 융합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간형이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의 근저에는 좌뇌와 우뇌의 통합적 사고(Integrative thinking)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AI 초기술혁명의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온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마음에도 균형이 필요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심리적 균형

과유불급,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다. 심리적인 특성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그 편중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균형 찾기에 대해 알아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사람들은 균형을 추구한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이다. 너무 높은 혈압과 너무 낮은 혈압이 문제가 되듯, 심리적 특성 또한 과도하거나 결핍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다. 쉬운 예로, 불안한 감정은 너무 많아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불안한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경우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감을 느껴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이 설명한 '남성 내면의 여성성(Anima아니마)'과 '여성 내면의 남성성(Animus아니무스)'이라는 개념이 있다. 다소 성차별적 개념이어서 최근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전통적인 여성성, 남성성의 편견을 답습하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통합적 특성으로서의 자아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우락부락한 몸집에 낮고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호호' 웃는 몸짓을 떠올려 보자. 예상되는 몸짓이 아니다 보니 어색하지만 그 몸짓을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인간적인 매력과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향적이어서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어떤 날은 혼자서 활동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Highly Sensitive Person) 외향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서 외부 활동 과정 중에 받았던 자극들을 털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다.

균형 점검이 필요하다면?

요즘 들어 일상이 버겁거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활을 점검해 보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

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면 반대로 잠잠하고 맛있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 혼자서 하는 운동만 주로 즐기고 있다면 아주 가끔은 단체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균형을 추구하는지를 밝히는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 바로 '귀여움과 공격성'에 대한 심리학 연구로, 귀여운 공격성(Cute Aggression, 미국 심리학자 Aragon 등의 연구)이라고 설명한다. 너무 귀여운 아기나 동물을 보면 '귀여워서 깨물어 주고 싶다, 꼬집어 보고 싶다, 귀여워서 발을 동동 굴리게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을까? 실제로 사람들은 귀여운 자극을 보면 보살펴 주고 싶으면서도 공격하고 싶은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고 한다.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평정심을 찾아 균형을 이루고 싶은 일종의 조절 행동이다. 우리나라 표현 중 '좋아 죽겠어', '신나서 미치겠다'처럼 과격하게 좋음을 표현하는 말들, 슬프고 어이없는 일이 생기면 너털웃음이 나오는 경우, 원하던 시험에 붙어서 뿔뿔이 기쁘는데 눈물이 나오는 경우 모두 유사한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적당한 수준으로! 뻥하지만 너무 간결한 논리이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알지

못할 존재여서 최적의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는 순간 지루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도 괜찮은 걸까? 뭔가 이상한데?'의 생각으로 평온한 정신을 다시 깨우고야 만다. 어쩌면 최적의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것은 환상일지도 모르겠다. 눈 감고 외발서기를 해보자. 살짝 비틀거려 가면서 중심을 잡아간다. 한쪽의 반응이 과해서 쏠리고 비틀댄다면 그저 비틀뻔으로써 균형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재미있는 인생이 아닐까?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한은섭·구승회·정대길 대표 부회장 승진

삼정KPMG가 6월 28일, '2023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7월 1일 정식 발령)를 발표했다.

삼정KPMG는 지난해 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모든 부문에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파트너 승진 인사도 전 서비스 영역에서 고루 이뤄졌다.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 한은섭, 구승회, 정대길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부대표 5명, 전무 22명, Equity Partner 24명,

Salary Partner 35명, Principal(전무) 1명, Senior Director(전무) 1명, Senior Director(상무) 9명 등이 승진했다. 승진 인사에는 회계 감사, 세무자문, ESG, 디지털, M&A 등 다양한 서비스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3년 신입 파트너도 33명이 선임됐다.

한편,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 경영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회장



한은섭 (Audit 임원실)



구승회 (DA 임원실)



정대길 (CS 임원실)

컨설팅 서비스(CS) 부문 대표에 박상원 부대표 선임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CS)를 이끌 부문 대표에 박상원 부대표가 임명됐다. 박 부대표는 “큰 영광이고 가슴 벅찬 일이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컨설팅 부문이 법인의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중심 축이 되기 위해 존중과 배려 속에서 협업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Head of CS
박상원 부대표

파트너 승진 인사

부대표



김진귀
(B&F3)



한상현
(ICE2)



최세홍
(IM2)



김효진
(DA6)



오현창
(Q&RM-DPP)

전무



조정래
(B&F1)



박우성
(B&F3)



박관중
(CM1)



정현진
(CM2)



전원표
(IM1)



지동현
(IM1)



이상근
(IM2)



김재연
(IM3)



김성배
(IM4)



박상욱
(IGH)



홍승모
(Tax2)



김성현
(Tax4)



백승현
(Tax5)



김태주
(Tax6)



조장균
(DA1)



이진연
(DA4)



서광덕
(DA4)



박영걸
(DA5)



양진혁
(DA6)



이동근
(Digital)



신기진
(SCG)



윤훈상
(SCG)

Equity Partner



복정수
(B&F2)



최재혁
(B&F3)



황구철
(CM1)



김시우
(CM2)



노정한
(ICE2)



김정기
(ICE2)



차정환
(ICE2)



허재훈
(ICE3)



설인수
(Tax1)



김정은
(Tax3)



조상현
(Tax3)



정소현
(Tax5)



조계승
(DA1)



고병준
(DA3)



정희석
(DA6)



정현경
(DA7)

Equity Partner



박형철
(SCG)



손호진
(MCS2)



문철호
(RCS)



정지영
(SCG)



여준형
(RCS)



박성철
(Digital Tech)



박원
(SCG)



제원용
(Q&RM-DPP)

Salary Partner



황정환
(Audit 임원실)



장영욱
(B&F1)



박정환
(B&F2)



임수빈
(B&F2)



김중규
(CM1)



이주형
(C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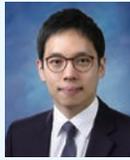
박홍민
(ICE1)



설유진
(ICE3)



차용재
(IM1)



조화수
(IM2)



강희석
(IM3)



이호철
(IM4)



이덕영
(IGH)



김세환
(Tax1)



홍태신
(Tax2)



이진욱
(Tax3)



이창훈
(Tax3)



최세훈
(Tax4)



임창희
(DA1)



김병두
(DA2)



배재환
(DA2)



임현수
(DA3)



김양태
(DA5)



정도영
(DA5)



정유철
(DA6)



윤승구
(DA7)



김만재
(MCS1)



김세진
(MCS2)



남윤철
(MCS2)



구자면
(RCS)



이기복
(RCS)



정기준
(RCS)



김한수
(Digital Tech)



허인재
(SCG)



공평식
(Q&RM-DPP/해외파견)

신임 파트너(Associate Partner) / 상무



정현호
(B&F2)



천성협
(B&F2)



손민
(B&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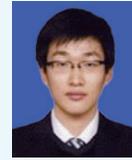
이현승
(B&F3)



이상기
(CM1)



민혜영
(CM2)



조한얼
(CM2)



이동윤
(ICE1)



설하영
(ICE1)



최연택
(ICE2)



설원
(ICE3)



이병훈
(IM1)



이학범
(IM2)



황현동
(IM2)



백명중
(IM3)



한대근
(IM4)



범승형
(IGH)



이현규
(Tax1)



오중현
(Tax2)



최형훈
(Tax2)



백천욱
(Tax3)



안성기
(Tax4)



김지선
(Tax4)



오영빈
(Tax6)



정재훈
(DA1)



유진우
(DA7)



서상현
(MCS2)



조효상
(MCS2)



광길중
(MCS2)



최진영
(Digital)



정대권
(Digital Tech)



정승연
(Digital Tech)



김시준
(SCG)

Senior Director/ 상무



박보람
(Actuaries)



김경민
(Tax3)



신동주
(Tax3)



석봉길
(DA4)



임형선
(MCS2)

Principal, Senior Director/ 전무



정희수
(Tax)



김정원
(MCS2)



지영석
(Digital)



장선미
(CS 임원실)



정소라
(Q&RM-RM)



김응주
(Q&RM-DPP)

‘제9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핵심감사사항·M&A·ESG 등 감사위 핵심 주제 제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열린 ‘제9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현장

삼정KPMG가 지난 7월 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50여 명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9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 ACI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핵심감사사항, M&A, ESG 등 세부 주제별로 제작된 동영상 드라마를 시청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생생히 전했다.

삼정KPMG 한상현 부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독과 핵심감사사항 논의’를 주제로 하여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위원회의 검토, 핵심감사사항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독립적 평가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어 삼정KPMG 김이동 부대표는 ‘M&A 의사결정에서 이사회 역

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M&A에서의 중점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M&A 의결과정에서의 이사회 활동, M&A 이후 조직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삼정KPMG의 김진귀 부대표는 ‘ESG 경영과 이사회 활동’을 주제로 ESG 경영 준비 현황 및 관련 규제 대응을 비롯하여 ESG 공시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네 번째 세션으로 고려대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가 주주행동주의와 이사회를 주제로 이사회 수준에서 주주행동주의에 고려할 사안을 설명했다. 끝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과 강연자들의 패널토론 시간도 가졌다.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 명예교수는 다수의 감사위원장 역임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핵심감사사항 주안점을 제언했다. 중앙대 경영대학 정도진 교수는 회사의 M&A 발생 시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ESG 경영에 있어



- 1, 2. ACI 자문교수단과 강연자들의 패널토론
3. ACI 리더 김유경 전무가 세미나를 위해 제작된 동영상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다
4. 본 세미나의 오프닝 연설을 맡은 김교태 회장의 모습



이사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향후 방향을 전망했고, 서울대 경영대학 김우진 교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각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아카데미 혹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9회 ACI 세미나'는 '삼정KPMG 아카데미'와 '삼정KPMG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공식 유튜브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발간

삼정KPMG가 2023년 개정 발표된 외부감사법과 2025년부터 적용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포함해 새롭게 변화되는 법·제도 등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을 발간했다. 이번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발표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을 반영했다.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의무화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도 소개했다.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선착순 접수를 받아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됩니다.



FY2023 신입 파트너 & S.Director 승진자 교육 진행



삼정KPMG는 FY2023 신입 파트너 & S.Director 승진자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6월 23일 'FY2023 신입 파트너 승진자 과정'이 서울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다. 삼정KPMG의 신입 파트너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승진자 과정은 삼정KPMG 양승열 대표, 신장훈 부대표, 신경철 부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후 롯데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축하 만찬 세션을 통해 신입 파트너로서 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6월 30일에는 'FY2023 S.Director 승진자 과정'이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구루 피플스 이창준 대표가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을 주제로 강연했고, 비즈니스 협상전략 그룹마스터 류재언 변호사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소통 강연을 펼쳤다. 한편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신입 파트너와 S.Director 승진자들은 새롭게 변화된 법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 지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연례 회의에서 지배구조 부문 대상 수상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 지부(Korea)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연례 회의에서 지배구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ICGN은 1995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매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상을 준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이 상의 수상자는 유럽기업지배구조원(ECGI),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의 리처드 콕스(Richard Koppes), 미국기관투자자협회(CII)의 앤 여거(Ann Yerger) 등이 있다.

한편, 삼정KPMG는 WCD의 글로벌 리더 스폰서로서, WCD Korea의 발전을 위해 매년 후원하는 등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Advisory Professional 위한 통합 학습 플랫폼 ‘Degreed’ 런칭



삼정KPMG가 Advisory Professional을 위해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는 지식과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Degreed를 런칭했다. Degreed는 LXP(Learner Experience Platform)으로써 전문가들의 스킬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주며, 1,500개 이상의 내외부 학습 콘텐츠(교육과정, 팟캐스트, 영상, 기사 등)를 한 플랫폼에서 큐레이션하여 통합 제공한다. 또한 머신러닝 및 AI 알고리즘에 따라, 관심 분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며 전문가들의 개별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ntact: L&D 도윤정 과장 (yoonjungtoh@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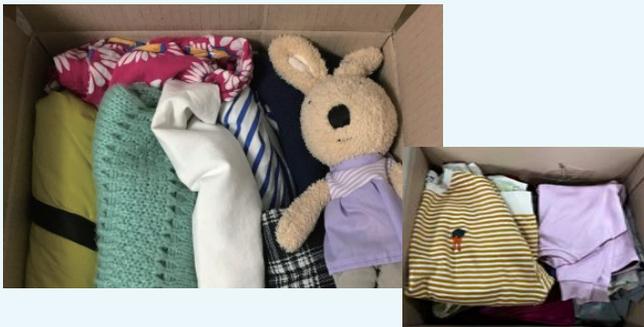
[사랑나눔]

‘푸른 숲 만들기’ 봉사로 탄소중립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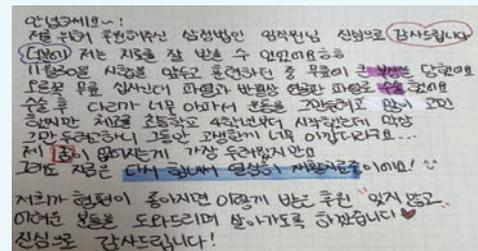
삼정KPMG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50여 명이 참여한 봉사활동 ‘푸른 숲 만들기’를 진행했다. 삼정KPMG는 2010년부터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열고 있으며, 활동에 참여한 누적 인원수는 1,000여 명에 달한다. 올해 행사는 4년 만에 현장 활동으로 열렸고, 봉사자들은 노을공원 일대에 헛개나무, 들메나무, 쉬나무 등 묘목 3종 총 100그루를 심었다. 나무의 생존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묘목을 심었다. 이번 수목 활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50t, 미세먼지 3.57kg를 저감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 옷 기부로 나눔 활동 전개



삼정KPMG가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헌 옷 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12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임직원 및 가족들이 기부한 헌 옷들은, 분류와 세탁 작업을 거쳐 국내외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정 SOS - 위기가정지원사업 진행



삼정KPMG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 소득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41명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했고,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김 모 아들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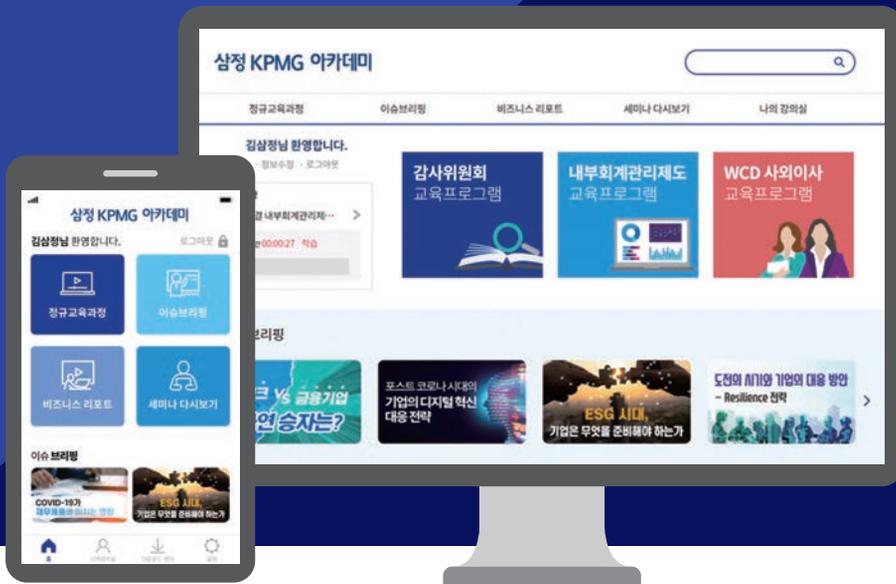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